

# 디지털문헌학으로 본 20세기 초 현상즉실재론의 한국 유입

- 『철학과 종교』에 대한 이돈화의 취사선택을 중심으로

2026-02-11 발표자: 허 수(서울대)

## I. 머리말

### II. DB 구축과 다국어 비교 방법

1. 문단별 데이터를 비교 단위로
2. 공통 한자어 비율을 계산

### III. 취사선택 양상과 특징

1. 참조쌍의 분포: 두 장에 97%가 집중
2. 가져온 것과 버린 것

### IV. 철학 개념을 다루는 방식

1. '철학'이라는 이름 지우기
2. 원문에서 읽는 대체 패턴
3. 패턴의 검증

### V. 맺음말

부록

## I. 머리말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은 서양 근대 사상을 수용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였다. 어떤 번역어를 쓸 것인가에서부터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조선 지식인들의 사고는 일본에서 들어온 지식과 정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유'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었다. 일본에서 특정한 맥락과 목적 아래 재구성된 서양 사상이 조선에 유입되었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를 다시 자신들의 맥락에 맞추어 받아들였다. 이 두 번의 변형 과정에서 원본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한국 근대 사상사의 핵심 질문 중 하나이다.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郎, 1856-1944)의 '현상즉실재론(現象即實在論)'은 이러한 변형의 전형적 사례를 제공한다. 현상즉실재론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 곧 실재(實在)라는 철학 이론이다. 이노우에는 도쿄제국대학 철학과 교수로서 서양 철학을 일본에 이식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으나, 그의 철학은 단순한 학술적 수입이 아니었다. 그는 현상즉실재론을 천황 중심 국가체제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국체론적**

**철학**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런 현상즉실재론 철학이 식민지 조선의 민족종교인 천도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천도교의 핵심 교리인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을 철학적으로 정립하려 한 이돈화(李敦化, 1884-1950?)가 이노우에의 논리를 참조한 것이다. 천황제 이념의 기초로 활용된 텍스트가 식민지 민족종교의 교리 정비에 사용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취해지고 무엇이 버려졌는가?** 그리고 **제국 학문의 흔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본 연구는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철학과 종교(哲學と宗教)』(1915)와 이돈화의 『인내천요의(人乃天要義)』(1924)를 비교 분석한다. 『철학과 종교』는 이노우에가 서문에서 밝힌 바, 최근 4-5 년간 발표한 철학과 종교 관련 논문을 모은 것이다. 현상즉실재론, 생명론, 의식론 등 그의 철학적 논의와 불교·기독교·유교에 대한 비교종교학적 평가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인내천요의』는 이돈화가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을 철학적으로 정립하려 한 대표작이다. 천도교의 교리를 단순히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양 철학의 개념과 논증 방식을 동원하여 인내천 사상의 보편적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두 텍스트의 영향 관계를 최초로 밝힌 것은 허수(2011)이다. 허수는 두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을 비교하여, 이돈화가 이노우에의 현상즉실재론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인내천 사상의 철학적 기초로 재해석했음을 논증하였다.<sup>1</sup> 이후 허수(2015)는 이 논의를 심화하여 '**소거(消去)**' 개념을 제시하였다. 허수에 따르면, 이돈화는 자신의 텍스트에서 이노우에의 이름이나 저서의 전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의 후속 텍스트에서 그 내용에 대한 언급도 희미해졌다.<sup>2</sup>

그러나 선행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범위의 문제**로서, 이돈화의 차용이 '현상즉실재론'에 관한 서술 부분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텍스트 전반에 걸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실증의 문제**로서, '소거'가 연구자의 인상적 관찰인지, 아니면 수치로 검증 가능한 현상인지 불분명하였다. 셋째, **빈자리의 문제**로서, 이돈화가 이노우에의 논리는 가져오면서 '철학'이라는 이름을 소거했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는지 규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 문헌학적 방법으로 두 텍스트를 재검토한다. '디지털 문헌학(digital philology)'이란, 텍스트의 비교·대조를 통해 영향

관계를 추적하는 전통적 문헌학의 작업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대규모로 수행하는 연구 방법이다.<sup>3</sup> 연구자가 두 텍스트를 나란히 놓고 유사한 대목을 찾는 작업을 컴퓨터로 확장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문단 쌍을 빠짐없이 비교하고 유사성의 분포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 한문 텍스트 연구에서도 텍스트 간 차용 관계를 이처럼 양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이를 통해 선행연구가 관찰한 현상을 수치로 검증하는 동시에, 연구자의 눈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차용의 전체 규모와 양상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돈화의 『인내천요의』는 이노우에의 『철학과 종교』를 **어디서, 얼마나** 참조했는가? 둘째, 참조 과정에서 '**哲學(철학)**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첫째 질문은 차용의 범위와 분포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며, 둘째 질문은 소거된 자리를 무엇이 채웠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

<sup>1</sup> 허수, 『이돈화 연구』, 역사비평사, 2011([교보문고](#)).

<sup>2</sup> 허수, 「『개벽』의 종교적 사회운동론과 일본의 '종교철학」, 『인문논총』 72(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325-355 쪽. DOI: 10.17326/jhsnu.72.1.201502.325([KCI](#)).

<sup>3</sup> 존스홉킨스대학 출판부에서 학술지 *Digital Philology: A Journal of Medieval Cultures*가 2012년부터 간행되고 있다(<https://muse.jhu.edu/journal/550>). 독일 다름슈타트 공대([Digital Philology 학위과정](#))와 스웨덴 옉살라 대학([DigPhil 대학원과정](#)) 등에서도 디지털 문헌학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sup>4</sup> Donald Sturgeon, "Digital Approaches to Text Reuse in the Early Chinese Corpus,"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and Culture* 5(2), 2018, pp.186-213([Duke University Press](#)); Robert McManus & Sichao Li, "Measuring Accommodation: A Quantitative Text-Reuse Analysis of Matteo Ricci's Reliance on Chinese Classics,"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Humanities*, 2025([Springer](#)).

## II. DB 구축과 다국어 비교 방법

---

### 1. 문단별 데이터를 비교 단위로

본 연구는 두 텍스트를 디지털 코퍼스(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코퍼스 구축은 다음 다섯 단계를 거쳤다.

① **원본 확보.** 『철학과 종교』(1915)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 공개된 스캔본을<sup>5</sup>, 『인내천요의』(1924)는 연구자 소장 원본의 고해상도 스캔본을 사용하였다.  
→ 산출물: 원본 PDF(1915: 국립국회도서관, 1924)

② **페이지 분할 및 재넘버링.** PDF 스캔본을 페이지 단위 이미지로 분할하고, OCR 처리에 적합하도록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 산출물: 페이지 이미지(1915: 832 장, 1924: 290 장)

③ **OCR 텍스트화.** 페이지 이미지를 기계 판독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하기 위해 Google Gemin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915년 텍스트의 일본어 고어(古語) 및 변체 한자, 1924년 텍스트의 국한문 혼용체를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며, 장·절·항의 위계 구조와 문단 구분을 자동으로 파악한다. → 산출물: 플레인 텍스트(1915, 1924)

④ **텍스트 검수.** OCR 출력물을 원본 스캔 이미지와 대조하여 오인식을 교정하였다. 유사 형태 한자의 혼동(예: 教/教), 문단 경계 오인식, 루비 텍스트(본문 옆 발음 표기) 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검수하였다.

⑤ **계층적 DB 구축.** 검수된 텍스트를 장 > 절 > 항 > 문단 > 문장의 계층 구조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각 텍스트에는 고유 코드(예: BK\_IT\_1915\_PR)를 부여하고, 텍스트 내 각 단위에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식별자를 부여하여, 다수의 텍스트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면서도 임의의 문장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sup> 이렇게 계층화하면, 문단 단위로 유사도를 비교하면서도 그 문단이 어느 장·절·항에 속하는지를 즉시 추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문장 단위까지 내려가 원문을 직접 대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IV장 2절의 대체어 패턴 분석에서는 이 방식을 활용하였다. → 산출물: 코퍼스 DB(1915: 11,088 행, 1924: 2,254 행) | DB 구조 문서

이렇게 구축된 코퍼스의 기본 정보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코퍼스의 기본 정보

텍스트	원저자	간행년	행 수	문단 수	한자어 토큰
『철학과 종교』	이노우에 데츠지로	1915	11,088	626	39,938

『인내천요의』	이돈화	1924	2,254	365	15,868
<b>비율 (1915:1924)</b>			<b>4.9:1</b>	<b>1.7:1</b>	<b>2.5:1</b>

<표 1>에서 보듯이, 1915 텍스트의 한자어는 약 4만 개, 1924 텍스트는 약 1만 6천 개로, **분량이 약 2.5 배** 차이 난다. 같은 단어가 10 번 나온다 해도, 4만 개짜리 텍스트에서의 10 회와 1만 6천 개짜리 텍스트에서의 10 회는 비중이 다르다. 이 때문에 단순 출현 횟수(절대빈도)만으로는 두 텍스트를 공정하게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비 비율인 상대빈도(천분율, ‰)를 함께 활용하였다.

두 텍스트의 구조 체계는 서로 다르다. 『철학과 종교』(1915)는 철학·종교 관련 강연과 논문을 모은 것으로, 29 개 장(서장 C00, 본문 C01-C26, 부록 C27-C28)이 장-문단-문장의 3 단계 체계로 병렬되어 있다. 『인내천요의』(1924)는 『개벽』 연재(1920-1921)를 바탕으로 편집한 교리서로, 6 개 장(C01~C06)이 장-절-항-문단-문장의 5 단계 체계로 세분되어 있다.

두 텍스트 모두 한자어가 핵심 개념어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2 자 이상의 한자어**를 자동으로 추출하였다. 예컨대 "唯物論과 唯心論의 對立"이라는 문장에서는 {唯物論, 唯心論, 對立}이라는 세 개의 한자어가 추출된다.

본 연구는 **문단(paragraph)** 을 비교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였다. 문장 단위로 비교하면 '宗教', '世界' 같은 흔한 단어 하나만 겹쳐도 유사하다고 판정되어 무의미한 일치가 너무 많이 잡힌다. 반대로 장 단위로 비교하면 한 장 안에 여러 주제가 섞여 있어 구체적인 참조 지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문단은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제공한다. 이제 비교 단위(문단)와 비교 기준(한자어)이 정해졌으므로, 두 문단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표 2> 문단 단위 분석 데이터

텍스트	문단 수	문단당 평균 한자어 종류
1915 철학과 종교	626 개	<b>40.2 종</b>
1924 인내천요의	365 개	<b>31.7 종</b>

<sup>5</sup> 井上哲次郎, 『哲學と宗教』, 弘道館, 191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https://dl.ndl.go.jp/pid/952938>)에서 전문 열람 가능.

<sup>6</sup> 예컨대 c03-s04-i02-p01-s01 은 '제 3 장(C03) 제 4 절(S04) 제 2 항(I02) 제 1 문단(P01)의 첫째 문장(S01)'을 가리킨다. 전역 식별자는 텍스트 코드(BK\_IT\_1915\_PR = 이노우에.1915.철학과종교)에 일련번호를 결합한 형식으로, 서로 다른 텍스트의 행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도 고유성이 보장된다.

## 2. 공통 한자어 비율을 계산

두 문단 간의 유사도는 **한자어 자카드 유사도(Jaccard similarity)** 로 측정하였다. 계산 방식은 직관적이다. 두 문단에 등장하는 한자어를 각각 모은 뒤, 겹치는 한자어의 수를 전체 한자어 종류의 수로 나눈다. 집합 연산이므로, 같은 단어가 문단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한 번만 센다(<표 2>의 '한자어 종류'가 이 기준이다). 겹치는 한자어가 많을수록 값이 높아지고, 완전히 같으면 1, 전혀 겹치지 않으면 0 이 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J(A, B) = |A \cap B| / |A \cup B|$ 이다.

1915 텍스트의 626 개 문단과 1924 텍스트의 365 개 문단을 전수 비교하여, 총 **228,490 개 문단 쌍**의 유사도를 산출하였다.

<표 3> 228,490 개 문단 쌍의 유사도 요약 통계

통계량	값
평균 ( $\mu$ )	0.005
표준편차 ( $\sigma$ )	0.013
중앙값	0.000
P99	0.048
P99.94 (135 개)	0.100

228,490 개 쌍의 평균 유사도는 0.005 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문단 쌍은 거의 겹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본 연구는 이 평균의 **20 배인 0.1 을 임계값**(유의미한 유사성을 인정하는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2 만 8 천여 개 쌍 중 이 기준을 넘는 경우는 **135 개(0.06%)** 에 불과했다.

이 기준은 의미론적으로도 엄격하다. 유사도 0.1 이란, 두 문단의 한자어를 모두 합쳤을 때 그중 약 10%가 겹친다는 뜻이다. 이를 실제 수치로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유사도 0.1 달성에 필요한 공통 한자어 수

문단 A 종류	문단 B 종류	필요 공통 종류
10 종	10 종	최소 2 종
20 종	20 종	최소 4 종
<b>40 종</b>	<b>32 종</b>	<b>최소 7 종</b>

평균적인 문단 크기(1915: 40 종, 1924: 32 종)에서 유사도 0.1 을 달성하려면, **최소 7 종의 동일한 한자어**가 두 문단에 공통으로 등장해야 한다. '宗教', '世界' 같은 범용어 1~2 개만 공유해서는 0.1 에 도달할 수 없고, '唯物論'(유물론), '唯心論'(유심론), '實在論'(실재론) 같은 **특정 주제의 전문 용어**가 여러 개 겹쳐야 비로소 0.1 에 이른다.

그러나 유사도 0.1 이상이라도, 공유하는 한자어가 **내용적으로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 이를 노이즈로 분류하여 제외하였다. 노이즈는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서수만 공유하는 경우**(7 개)로, '第一', '第二' 등 번호 표기만 공유하고 핵심 개념어는 공유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범용어만 공유하는 경우**(17 개)로, '宇宙', '世界', '如何' 등 특정 학술 맥락을 지시하지 않는 범용어만 공유하는 경우이다.

<표 5> 노이즈 필터링 결과

구분	개수
초기 후보	135 개
노이즈 (서수)	-7 개
노이즈 (범용어)	-17 개
<b>유효 쌍</b>	<b>111 개</b>

노이즈를 제외한 결과, **111 개 유효 참조쌍**이 확정되었다. 실제 참조쌍에서는 문단 크기에 따라 필요한 공통 한자어 수가 달라진다. <표 6>은 111 개 쌍의 유사도 구간별 분포와, 각 구간의 대표 사례를 보여준다.

<표 6> 111 개 유효 참조쌍의 구간별 분포와 대표 사례

유사도 구간	쌍 수	대표 유사도	1915 문단 한자어	1924 문단 한자어	공통 한자어
0.10~0.15	<b>87 개</b>	0.10 (2/20)	16 종	6 종	唯物論, 唯心 論 (2 종)
0.15~0.20	<b>17 개</b>	0.17 (2/12)	4 종	10 종	動物, 意識 (2 종)
0.20 이상	<b>7 개</b>	0.31 (4/13)	9 종	8 종	儒敎, 基督, 基督教, 復活 (4 종)
<b>합계</b>	<b>111 개</b>				

문단이 작을수록 적은 수의 공통어로도 높은 유사도에 도달하지만, 어느 구간에서든 공유되는 한자어는 범용어가 아닌 전문 용어이다. 예를 들어 <표 6>의 첫 행(유사도 0.10)에서 두 문단의 원문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1915 C02 현상즉실재론 첫 문단 (한자어 16 종)**

"私は茲に唯物論と唯心論とに對する實在論の哲學的價値といふことに付いてお話をする積りであります。是れは詳しくお話致しますと随分長く掛かることでもありますけれ共、今は主として實在論の立場を明かにするのを目的とするのでありますからして、其關係のあらましを述べる積りであります。併ながら此唯物論と唯心論といふ二つの哲學説は哲學史上なか / \ 重大な立場でありますから、之に對する批評の要點を先づ簡単に擧げる積りであります。"

(나는 여기에서 유물론과 유심론에 대한 실재론의 철학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길어지겠으나, 지금은 주로 실재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관계의 대략을 서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유물론과 유심론이라는 두 철학설은 철학사상 매우 중대한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비평의 요점을 먼저 간단히 들겠습니다.)

**1924 C03-S04-I02 實在와 人乃天 첫 문단 (한자어 6 종)**

"네로부터 哲人들이 宇宙를 觀하는 眞理에 잇서 두 가지 큰 潮流가 잇나니 하나는 唯物論이오 하나는 唯心論이라 하는 것이라"

두 텍스트 모두 唯物論(유물론)과 唯心論(유심론)이라는 동일한 철학적 프레임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도 수치의 이면에는 구체적인 개념어의 공유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 이 111 개 쌍이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 Ⅲ. 취사선택 양상과 특징

#### 1. 참조쌍의 분포: 두 장에 97%가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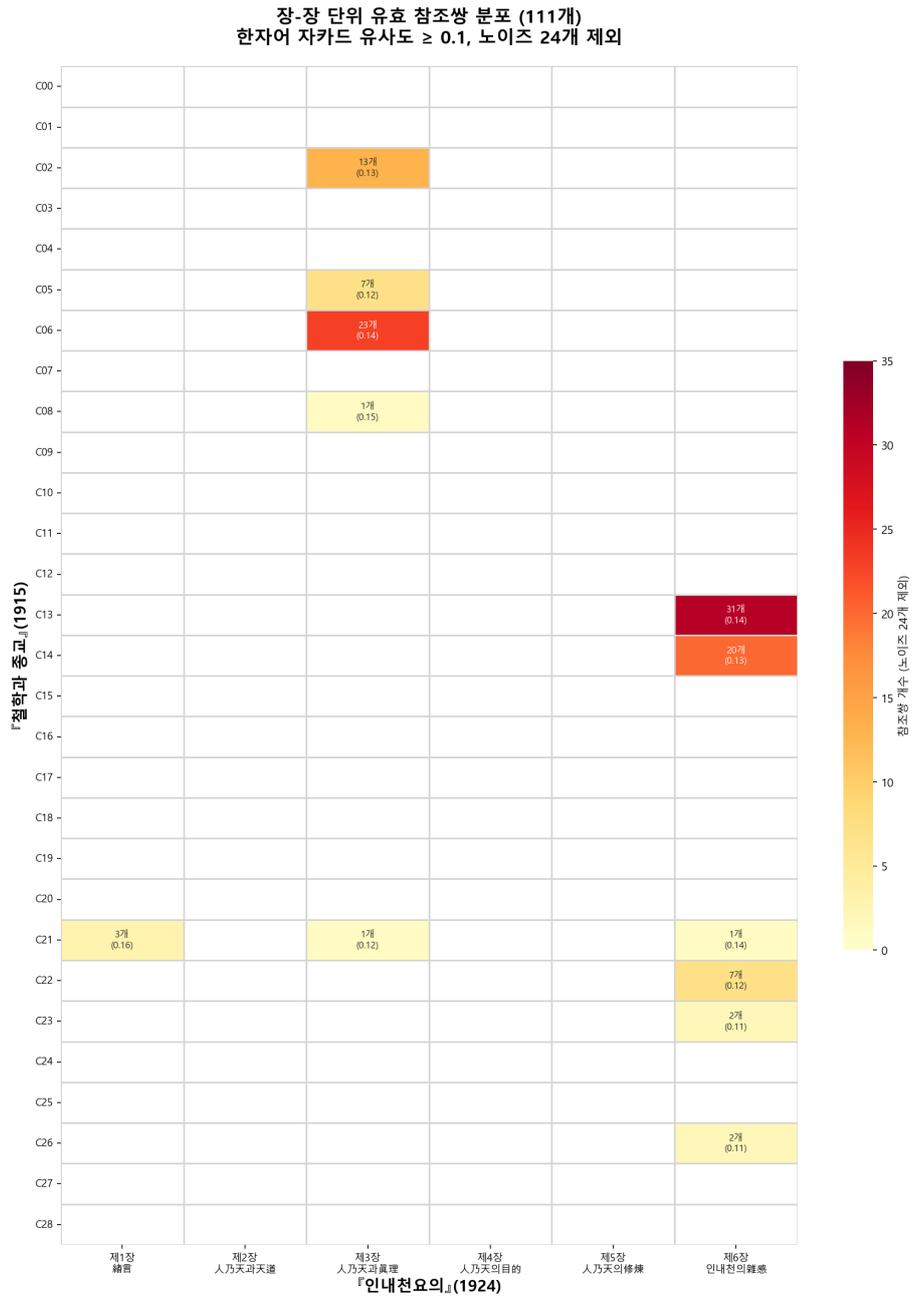
111 개 유효 쌍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뚜렷한 편중이 드러났다. 1924 텍스트의 6 개 장 중 C03(人乃天과 眞理) 에 45 개, C06(人乃天에 對한 雜感) 에 63 개가 집중되어, 이 두 장이 전체의 97% 를 차지한다(〈표 7〉).

〈표 7〉 1924 장별 유효 참조쌍 분포

1924 장	제목	유효 쌍	비율
C01	緒言	3 개	3%
C02	人乃天과 天道	0 개	0%
C03	人乃天과 眞理	45 개	41%
C04	人乃天의 目的	0 개	0%
C05	人乃天의 修煉	0 개	0%
C06	人乃天에 對한 雜感	63 개	57%
합계		111 개	100%

나머지 4 개 장에서는 참조쌍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1〉의 히트맵은 이 편중을 1915 텍스트의 장(세로축)과 1924 텍스트의 장(가로축) 간의 관계로 보여준다.

## <그림 1> 장-장 단위 유효 참조쌍 히트맵



111 개 유효 참조쌍 (자카드 유사도  $\geq 0.1$ ). 색상은 참조쌍 개수, 괄호 안은 평균 유사도.

히트맵에서도 1924 텍스트의 C03 열과 C06 열에만 붉은 셀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같은 111 개 쌍을 문단 단위의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이다. 왼쪽의 1915 문단 52 개(●)와 오른쪽의 1924 문단 35 개(◆)가 유사도에 따른 111 개의 연결선으로 이어져 있다. 노드 크기는 연결 수에 비례하며, 특정 노드를 클릭하면 해당 노드의 연결만 부각된다.



〈표 9〉 C03-S04 항별 참조쌍 분포

항	제목	참조쌍	참조 원천 (1915)
I01	實現思想과 人乃天	0 개	-
<b>I02</b>	<b>實在와 人乃天</b>	<b>13 개</b>	C02 (현상즉실재론)
I03	汎神觀과 人乃天	0 개	-
I04	生命과 人乃天	5 개	C05 (생명론)
<b>I05</b>	<b>意識과 人乃天</b>	<b>21 개</b>	C06 (의식론)
I06	靈魂과 人乃天	4 개	C05 (생명론)
I07	進化와 人乃天	1 개	C08 (진화론)

이는 각각 이노우에의 현상즉실재론(C02)과 의식에 관한 논의(C06)를 참조한 것이다. 즉 이돈화는 이노우에의 핵심 철학 이론을 인내천 사상의 '진리' 근거로 끌어온 것이다.

한편, C06 안에서는 **제 6 절(S06)** 에 참조쌍이 몰려 있다. 이 절은 유교·불교·기독교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노우에의 C13(기독교와 유교 비교)에서 31 개, C14(불교와 기독교 비교)에서 20 개를 참조한다(〈표 10〉).

〈표 10〉 C06-S06 참조쌍의 1915 원천

1915 장	1924 절	쌍 수	비교 항목
C13 (기독교와 유교)	C06-S06	31 개	信仰/德教, 創造/發展, 復活, 兼愛/差別愛
C14 (불교와 기독교)	C06-S06	20 개	沒我教/主我教, 涅槃/天國, 汎神/一神

이돈화는 이노우에의 비교종교학적 틀을 가져와, 인내천의 우위를 논증하는 데 활용한 것이다.

요약하면, 이돈화는 이노우에의 (1) 현상즉실재론, (2) 의식 이론, (3) 비교종교학 프레임워크를 **선별적이고 집약적으로** 차용하였다. 그렇다면 이돈화가 가져온 것과 가져오지 않은 것 사이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

## 2. 가져온 것과 버린 것: 보편적 논리만 차용

이돈화의 차용에는 분명한 선별 기준이 있었다. 이노우에 텍스트 후반부의 일본 신도론(C25), 일본 신화·인종론(C26-28), 일본 불교 우월론 등에서는 **단 한 건의 참조쌍도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 중심주의가 짙은 내용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표 11〉 차용된 내용과 차용되지 않은 내용

차용된 내용	차용되지 않은 내용
현상즉실재론 (C02)	일본 신도론 (C25)
헤켈 의식론 (C06)	일본 신화·인종론 (C26-28)
생명론 (C05)	일본 불교 우월론
儒基/佛基 비교 프레임 (C13-14)	일본 중심주의

그렇다면 이돈화가 실제로 가져온 것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가? 유물론과 유심론을 넘어서는 실재론의 논리, 의식의 발전 단계 이론, 종교 유형 분류 체계(沒我敎/主我敎, 汎神敎/一神敎) 등 차용된 내용들은 모두 **특정 나라나 종교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 논리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보편적 논리는 원래 맥락에서 떼어내어 다른 맥락에 이식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기능한다. 범용 부품에 비유할 수 있다. 이노우에는 이 도구를 천황제 국가 이념에 조립했고, 이돈화는 같은 도구를 천도교 인내천 사상에 조립한 것이다.

이노우에에게 종교 유형 분류나 실재론은 자기 철학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이돈화는 동일한 논리 구조를 사용하면서도 결론을 인내천의 우월성으로 바꾸어 놓는다(〈표 12〉). 같은 도구로 정반대의 건물을 지은 셈이다.

〈표 12〉 동일 프레임의 결론 전환

비교 항목	이노우에의 평가	이돈화의 활용
沒我敎/主我敎	불교의 특성으로 제시	인내천은 이 구분을 초월
汎神敎/一神敎	종교 유형 분류	인내천은 양자를 종합
唯物/唯心	실재론으로 지양	인내천으로 지양

이처럼 이돈화는 보편적 논리를 가져오되 일본적 맥락은 버렸고, 같은 논리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이노우에에게서 가져온 내용이 명백히 '철학적'임에도 불구하고, '哲學'(철학)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돈화의 텍스트에서 거의 사라진다는 점이다.

## IV. 철학 개념을 다루는 방식

### 1. 철학의 내용은 가져오고, '철학'이라는 이름은 지우다

111 개 유효 참조쌍에서 두 텍스트가 공유하는 한자어 목록을 살펴보면, 역설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唯物論(유물론), 唯心論(유심론), 實在(실재), 意識(의식) 등 철학적 개념어들이 빈번히 등장하는 반면, 정작 '哲學'이라는 단어 자체는 공유 목록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돈화는 철학의 '내용'은 가져왔으나, '철학'이라는 '이름'은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빈도를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 뚜렷해진다. '哲學'은 1915 년 텍스트에서 빈도 8 위(365 회)인 데 비해, 1924 년 텍스트에서는 518 위(6 회)에 불과하다(〈표 13〉).

〈표 13〉 두 텍스트의 '哲學' 빈도 비교

텍스트	'哲學' 순위	빈도	상대빈도(‰)
1915 철학과 종교	8 위	365 회	9.14‰
1924 인내천요의	518 위	6 회	0.38‰

이 차이는 참조가 집중된 C03 의 45 개 쌍을 문단 수준에서 분석하면 더 선명해진다. 45 개 쌍에서 중복을 제거하면 1915 측 고유 문단은 23 개, 1924 측 고유 문단은 18 개이다. 이 문단들의 고빈도 한자어를, 이노우에가 '철학'을 논한 서론~제 11 장(C00-C11) 전체와 비교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1915 철학 서술 전체 vs 참조쌍 문단의 고빈도 한자어

순위	A 단어	A 빈도(‰)	B 단어	B 빈도(‰)	C 단어	C 빈도(‰)
1	生命	500 (28.3)	唯物論	8 (51.9)	意識	8 (48.8)

2	哲學	344 (19.5)	意識	8 (51.9)	意識論	7 (42.7)
3	人間	278 (15.7)	唯心論	7 (45.5)	本位	6 (36.6)
4	目的	227 (12.9)	生命	7 (45.5)	生命	6 (36.6)
5	意志	153 (8.7)	精神	6 (39.0)	物質	4 (24.4)
6	研究	149 (8.4)	物質	4 (26.0)	眞理	3 (18.3)
7	解釋	148 (8.4)	救濟	4 (26.0)	動物	3 (18.3)
8	問題	131 (7.4)	實在論	3 (19.5)	神經	3 (18.3)
9	宗教	130 (7.4)	發展	3 (19.5)	作用	3 (18.3)
10	精神	117 (6.6)	細胞	2 (13.0)	吾人	3 (18.3)

A = 1915 C00-C11 전체(17,656 토큰), B = C03 45 쌍 중 1915 측 고유 23 문단(154 토큰), C = C03 45 쌍 중 1924 측 고유 18 문단(164 토큰). 서수 제외. A 열은 일본어 기능어(出來:其處:矢張 등)도 제외하였다. 이들은 일본어 원문의 문법적 요소가 한자 표기된 것으로, 내용어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

C00-C11 전체(A)에서 '哲學'은 2 위(344 회, 19.5%)에 달하지만, 이돈화가 선택한 23 개 문단(B)에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돈화의 18 개 대응 문단(C)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돈화는 '哲學'이 빈출하는 메타 서술이 아니라, 唯物論(8 회)·唯心論(7 회)·意識(8 회) 등 구체적 이론을 전개하는 문단만을 골라서 가져온 것이다.

한편 B와 C에서 공통으로 상위 10에 든 단어는 意識(B 8 회, C 8 회)·生命(B 7 회, C 6 회)·物質(B 4 회, C 4 회)의 3 개뿐이다. B에서 두드러지는 唯物論(8 회)·唯心論(7 회)·實在論(3 회) 등은 C에는 나타나지 않고, C에서는 意識論(7 회)·本位(6 회)·眞理(3 회) 등이 상위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哲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실제로 무엇이 들어갔을까?

## 2. 원문에서 읽는 대체 패턴

111 개 유효 참조쌍 중 1915 년 문단에 '哲學'이 포함된 쌍은 5 개다. 그중 4 개에서 1924 년 대응 문단에는 '哲學'이 빠져 있고, 1 개에서만 유지된다.

### <표 15> 유효 참조쌍에서 '哲學' 소거 현황

구분	개수
1915 에 '哲學' 포함 참조쌍	5 개
그 중 1924 에도 '哲學' 있음	1 개
<b>1924 에 '哲學' 없음</b>	<b>4 개</b>

이 5 개 사례를 원문 대조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자.

**소거 사례 ①: '哲學的價値' '哲學系統' → '哲人' + '眞理'**

이노우에의 현상즉실재론 장(C02)에서 두 문단이 이돈화의 같은 문단(C03-S04-I02-P01)에 참조된다.

**1915 C02-P01** 私は茲に唯物論と唯心論とに對する實在論の**哲學的價値**といふことに付いてお話をする積りであります。是れは詳しくお話致しますと随分長く掛かることありますけれ共、今は主として實在論の立場を明かにするのを目的とするのでありますからして、其關係のあらましを述べる積りであります。併ながら此唯物論と唯心論といふ二つの**哲學說**は**哲學史上**なか / \ 重大な立場でありますから、之に對する批評の要點を先づ簡単に擧げる積りであります。

(나는 여기서 유물론과 유심론에 대한 실재론의 **철학적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상당히 길어지지만, 지금은 주로 실재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그 대략을 서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론과 유심론이라는 두 **철학설**은 **철학사상** 매우 중대한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비평의 요점을 먼저 간단히 들겠습니다.)

**1915 C02-P22** 併しながら此處に唯心論と申しまする中には色々な**哲學系統**が含まれて居ります。唯心論は唯物論のやうに、さう單純に取扱ふことは出來ぬ。なか / \ 其種類が多い。それで此處では凡ての唯心論を論ずる譯には往かぬ。逆もさう云ふ暇はない。なか / \ それは一遍で出来ることではないのでありますから、此處では極めて偏したる唯心論即ち唯物論と對立したる唯心論を取つて評論するに止める積りであります。

(그런데 유심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러 **철학 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심론은 유물론처럼 단순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유심론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서서는 극히 편향된 유심론, 즉 유물론과 대립하는 유심론을 취해 평론하는 데 그치겠습니다.)

이돈화는 동일한 유물론·유심론 논의를 가져오되, '哲學的價值'·'哲學系統'·'哲學說'·'哲學史'를 모두 쓰지 않는다.

**1924 C03-S04-I02-P01** 네로부터 哲人들이 宇宙를 觀하는 眞理에 잇서 두 가지 큰 潮流가 잇나니 하나는 唯物論이오 하나는 唯心論이라 하는 것이라

이노우에가 '哲學的價值'(학문 체계의 가치), '哲學系統'(학문 체계의 분류), '哲學說'·'哲學史'(학문의 역사)라고 표현한 것을, 이돈화는 '哲人들이... 眞理에 있어서'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철학적 입장을 논하는 내용이 우주의 진리 차원으로 전환된 것이다.

#### 소거 사례 ②: '哲學宗教의 特色' → '理想의 境涯'

이노우에는 열반을 불교의 궁극 목적(究竟目的)으로 보면서, 이를 '인도 철학종교의 특색'이라는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1915 C14-S04-P05** 第三に佛敎には涅槃(ニルヴァーナ)の考へがあります。涅槃は究竟目的でありまして實に印度の哲學宗教の特色であります。さうして是れは基督教には全く無い事であります。尤もポーロなどの説く所に依りますと多少解脱に類したやうなことはあります。即ち罪ある人間が神様に救はれて永久不滅の生活を得、即ち天國に入ると云ふのはマア或程度の解脱のやうなものであります。けれども涅槃といふ觀念は基督教のやうな最後まで人格を立する宗教には有り得られぬことであります。天國に入るといふことはあつても涅槃と見る譯には行かないのであります。天國に入つてもやはり神様の右に居るといふやうな何處までも差別相が伴つて居ります。佛敎の涅槃に於ては差別相は悉く消滅して了ふのであります。此の涅槃といふ究竟目的の有無が亦佛基二敎の差異點としては極めて顯著なるものと見るべきであります。

(셋째로 불교에는 열반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열반은 궁극 목적으로 실로 인도 철학종교의 특색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등의 설에 따르면 다소 해탈에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즉 죄 있는 인간이 신에게 구원받아

영원불멸의 생활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해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열반이라는 관념은 기독교처럼 끝까지 인격을 세우는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역시 신의 오른편에 있다는 식으로 어디까지나 차별상이 수반됩니다. 불교의 열반에서는 차별상이 모두 소멸합니다. 이 열반이라는 궁극 목적의 유무가 불기 이교의 차이점으로 매우 현저한 것입니다.)

이돈화의 대응 문단은 같은 열반·천국 비교를 다루면서 '哲學宗教'를 쓰지 않는다.

**1924 C06-S06-P16** 庚、佛敎는 最後 理想의 境涯를 涅槃이라 하였으나 基督教는 그를 天國이라 名命한 것이라 大概 涅槃과 天國의 差別點은 前者는 모든 個性我的 差別相을 滅하여 空觀을 得함으로써 어든 境涯이오 天國은 不然하여 自我個性의 信仰의 執着心으로써 此에 到達할 수 잇다 함이라 그럼으로 涅槃은 滅道로써 得하는 것이오 天國은 信仰으로써 得하는 것이라

이노우에는 열반을 '哲學宗教의 特色'이라 하여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기독교와 대비하고, 이돈화는 이를 '理想의 境涯'라 하여 종교적 실천의 관점에서 기독교와 비교한다. **같은 내용을 다루되, 학문적 분류의 틀이 종교적 실천의 언어로 바뀐 것이다.**

### 대조군: '哲學'이 유지된 사례

5 개 중 유일하게 '哲學'이 소거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면, 소거의 논리가 더 분명해진다. 이노우에는 불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1915 C14-S02-P05** 一體佛敎は無論宗教でありますけれども、單に宗教であるといふだけでは盡きて居らぬ。佛敎は亦哲學であります。哲學と宗教と此の兩つのものがこんがらがって出來て居ります。それは初からさういふ性質を有つて居りました。大乘佛敎になつてさう云ふ性質が始めて出來たといふのではなくして原始佛敎の時から哲學的方面と宗教的方面と兩方有つて居る。これで純粹な哲學とも云へない、純粹な宗教とも云へないやうな處がある。廣い意味から言へば宗教に相違ないけれども、基督教の單に宗教的であるのとは餘程違つて居る。つまり是れは婆羅門敎と共通した性質であります。婆羅門敎がやはり哲學的方面と宗教的方面とを有つて居ります。佛敎も婆羅門敎の後繼者

で此の二方面を具有して居りまして、感情の満足と共に理性の満足を來すやうに出來て居る。是れが佛教の特色といへば特色といへる處であります。所が基督教の方は**哲學**といふものが初めからあつたのではない。後には出來ましたけれども、それは原始基督教にあつたのではない。教父時代又はスコラ時代などに神學が發達致したから基督教**哲學**といふやうなものが今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基督やポーロの説いた教には佛教の**哲學**のやうなものはない。佛教は**哲學**的であるが爲めに理性的であります。基督教は宗教的であるが爲めに感情的であります。それに佛教の側では婆羅門教と同じ様に眞諦門と俗諦門とがあります。俗諦門の側では宗教的感情の満足を來すやうに出來て居るけれども、それだけでは足らぬ。それで眞諦門に依つて理性の満足を來すやうに出來て居る次第であります。どちらが善い惡いと云ふやうなことは姑く措きまして、兎に角是れが佛基二教の差異點として認むべき所であります。

(불교는 물론 종교이지만, 단지 종교라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교는 또한 **철학**입니다. **철학**과 종교,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원시불교 때부터 **철학적** 방면과 종교적 방면 양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철학**이라고도 할 수 없고, 순수한 종교라고도 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종교에 틀림없지만, 기독교의 단순히 종교적인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은 바라문교와 공통된 성질입니다. 바라문교도 역시 **철학적** 방면과 종교적 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바라문교의 후계자로 이 두 방면을 갖추어 감정의 만족과 함께 이성의 만족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특색이라면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쪽은 **철학**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생겼지만, 원시 기독교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부 시대나 스콜라 시대에 신학이 발달하여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이 지금은 있습니다만, 기독이나 바울이 설한 가르침에는 불교의 **철학** 같은 것이 없습니다. 불교는 **철학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기독교는 종교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입니다. 게다가 불교 측에서는 바라문교와 마찬가지로 진제문과 속제문이 있습니다. 속제문 측에서는 종교적 감정의 만족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제문에 의해 이성의 만족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아무튼 이것이 불기 이교의 차이점으로 인정해야 할 바입니다.)

이 문단에서 '哲學'은 9 회나 등장하는데, 모두 불교 교리 자체의 철학적 성격을 지칭한다. 서양 근대 학문의 제도적 권위가 아니라, 불교가 본래 가진 이성적·논리적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돈화도 이 맥락을 그대로 수용한다.

1924 C06-S06-P11 乙、佛敎는 理性的 方面이 多하되 基督教은 感情的 方面이 多한 것 佛敎의 敎理는 元來 組織的 演繹的 (例如 四聖諦 八正道 其他 認識論的 哲學) 으로 哲學的 理論이 豊富하고 理性的 指導가 綽綽하되 基督教은 不然하야 神의 憧憬的 信念으로 起하는 感情의 部分이 多한 것이라

이돈화의 대응 문단에도 '哲學'이 2 회 등장한다. '認識論的 哲學', '哲學的 理論'은 모두 불교 교리의 특성을 가리킨다. 이돈화가 소거한 것은 '서양 철학의 제도적 권위'이지, '철학적 사유 일반'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조군이다.

〈표 16〉 '哲學' 대체 패턴 2 종

패턴	1915 원어	1924 대체어	전략
A	哲學的價值, 哲學系統	哲人 + 眞理	철학적 입장 → 우주의 진리 차원
B	哲學宗教의 特色	理想의 境涯	학문적 범주 → 도달해야 할 경지

두 가지 대체 패턴(① 학문적 권위 → 진리의 차원, ② 학문적 범주 → 종교적 경지)과, 불교의 철학적 성격을 가리킬 때는 '哲學'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사례 ③: 소거가 아닌 경우

사례 ①②의 소거 패턴이 뚜렷하기에, 같은 패턴을 더 찾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러나 이 방향에 맞추어 데이터를 읽다 보면, 실제로는 소거가 아닌 것까지 소거로 보게 될 위험이 있다. 사례 ②와 같은 1915 년 C14 장(불교와 기독교)에서 가져온 한 사례가 이 위험을 잘 보여준다.

이돈화의 다음 문단은, '哲學宗教의 特色'이라는 표현이 담긴 1915 년 문단(C14-S04-P05)과 참조쌍을 이룬다(Rank 111, 유사도 0.104).

**1924 C06-S06-P14** 戊、佛敎는 沒我敎이나 基督敎는 主我敎이라 佛敎는 個我를 沒케 하여 大我 卽 佛의 性を 實現함으로써 그 目的을 삼았으나 基督敎는 神性和 人格을 差別한 上에 個性의 執着을 主張한 것이라 말아서 佛敎는 어대까지든지 差別相을 沒함으로써 眞覺이라 하였고 基督敎는 現世와 來世를 區別하여 差別相을 세우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佛敎는 此 沒差別한 平等으로 宇宙를 無始無終이라 하였으나 基督敎는 差別的 觀念으로 宇宙創造說을 信하게 되는 것이라

사례 ①②와 같은 눈으로 보면, 이노우에의 '哲學宗教의 特色'이 이돈화의 '沒我敎/主我敎'로 바뀐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방향을 바꿔보자. 이돈화의 핵심 키워드 '沒我敎'와 '主我敎'에서 출발하여 1915 년 텍스트에서 이 단어들의 실제 출처를 추적하면, 전혀 다른 문단이 나타난다. 3 장 1 절의 <그림 2>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沒我敎·主我敎를 직접 사용하는 1915 년 문단은 따로 있다.

**1915 C14-S03-P04** 第三に佛敎は**沒我敎**であります。 悟を開かぬ者は六道に輪廻するといふことを説きまして、...悟を開けば宇宙の實在と一體となつて沒我の境遇に入る譯である。 佛敎の目的とする處は沒我である。 ...基督敎は何處までも**主我敎**であります。 ...言換へて見れば、基督敎は何處までも差別相を脱しない敎である。 佛敎は差別相からして平等相に入らうとする敎である。

(셋째로 불교는 **몰아교**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우주의 실재와 일체가 되어 몰아의 경지에 드는 것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몰아입니다.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주아교**입니다. ...바뀌 말하면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차별상을 벗어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차별상에서 평등상으로 들어가려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문단이야말로 이돈화의 실제 원천이다. 이돈화의 문단과 공통 토큰이 **沒我敎, 主我敎, 差別相, 來世, 現世, 目的** 등 **9 종**에 달하고, 유사도 순위도 Rank 10(0.184)으로 높다. 반면, 처음에 소거의 원천으로 보았던 '哲學宗教의 特色' 문단과의 공통 토큰은 佛敎, 基督敎, 差別相, 人格, 觀念 등 **5 종**에 불과하며, 이 중 3 종(佛敎, 基督敎, 差別相)은 불교·기독교를 비교하는 문맥이라면 어디서든 나타나는 범용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제 원천 문단에는 '哲學'이 없다.**

정리하면 이렇다. 이돈화의 沒我教/主我教 논의는 '哲學'이 담긴 문단에서 온 것이 아니라, '哲學'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문단에 기반한 것이다. 처음에 본 약한 연결(Rank 111)은 불교·기독교 비교라는 공통 주제가 만들어낸 부수적 신호일 뿐, '哲學' 소거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 사례는 방법론적 경고가 된다. '哲學 소거'라는 가설을 품고 데이터를 보면, 약한 연결에서도 소거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 방향 -- 이돈화의 키워드에서 출발하여 이노우에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 -- 에서 접근하면, 같은 데이터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량적 방법은 해석의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한쪽 방향에서만 읽으면 확인 편향에 빠질 수 있다.**

이 경고를 염두에 두면서, 사례 ①②에서 확인한 대체 패턴이 개별 사례에 그치는 것인지 정량적 분석으로 범위를 넓혀 확인한다.

### 3. 패턴의 검증: 111 쌍에서 전체 코퍼스로

앞 절에서 확인한 대체 패턴이 개별 사례에 그치는지, 두 가지 정량적 분석으로 범위를 넓혀 확인한다.

#### 차등 어휘: 111 개 참조쌍의 어휘 교체

111 개 참조쌍은 이돈화가 이노우에의 텍스트를 참조했음이 확인된 구간이다. 각 쌍에서 1915 문단에만 있는 한자어(A-B)는 이돈화가 가져오지 않은 단어, 1924 문단에만 있는 한자어(B-A)는 이돈화가 새로 쓴 단어에 해당한다. 이 둘을 111 쌍 전체에 걸쳐 집계하면, 이돈화가 이노우에의 텍스트에서 어떤 어휘를 걷어내고 어떤 어휘로 대체했는지를 개별 사례가 아닌 집합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

A-B 에는 430 종, B-A 에는 326 종의 고유 단어가 있다. 각각의 상위 15 개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표 17> 111 개 참조쌍의 차등 어휘 상위 15

순위	A-B (1915 에만)	A-B 쌍수	B-A (1924 에만)	B-A 쌍수
1	宗教	26	差異点	22
2	相違	15	來世	17

3	出來	15	不然	17
4	對照	14	本位	16
5	人間	14	一般	12
6	差異點	12	希望	12
7	神樣	12	目的	12
8	發展	12	思考	11
9	餘程違	11	基督	11
10	非常	10	信者	10
11	細胞	9	<b>哲人</b>	<b>10</b>
12	性質	9	<b>眞理</b>	<b>9</b>
13	信仰	8	觀念	9
14	顯著	8	復活	9
15	日本	8	宇宙	8

양쪽 모두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범용어(差異點/差異点, 來世, 不然 등)다. 그런데 A-B 430 중 중 '哲學'을 포함하는 복합어가 8 종 있다.

〈표 18〉 A-B 에 포함된 '哲學' 복합어 8 종

A-B 哲學 복합어	출현 쌍수
哲學宗教	2
哲學的價值	1
哲學系統	1
哲學說	1
哲學史上	1
哲學的方面	1
基督教哲學	1

亦哲學	1
-----	---

B-A 326 종 중 주목할 것은 哲人(10 쌍, 11 위)과 眞理(9 쌍, 12 위)다. 哲人은 B-A 에서 '皙' 자를 포함하는 유일한 단어이고, 眞理는 사례 ①에서 실제 대체어로 확인된 단어다. 물론 目的(7 위)이나 思考(8 위) 등도 철학적 담론과 관련이 깊으나, '皙學'이라는 단어 자체의 흔적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哲人·眞理가 특히 눈에 띈다.

사례 ①에서 확인한 '皙學的價値·皙學系統 → 哲人+眞理' 교체가, 개별 사례가 아니라 111 쌍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경향은 이노우에를 참조한 구간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1924 텍스트 전체에서도 관찰되는가?

### 의미장 분석: 전체 코퍼스에서의 확인

111 개 참조쌍을 넘어, 1924 텍스트 전체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1915 텍스트 626 개 문단 중 '皙學'이 포함된 117 개 문단에서, 皙學과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의 프로필을 구축하였다. 의미장 포함 기준은 두 가지다.

- **동반율 ≥ 15%**: 皙學 문단 117 개 중 18 개 이상에서 출현할 것
- **배율 ≥ 1.5x**: 皙學 문단에서의 출현율이 전체 문단 대비 1.5 배 이상일 것

특히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이 핵심이다. 어떤 단어가 단순히 皙學 문단에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그 단어가 皙學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宗教'는 皙學 문단의 26.5%에서 나타나지만, 皙學이 없는 문단에서도 25.9%에 달한다. 이 경우 '宗教'의 배율은 1.0x 으로, 텍스트 어디에나 흔한 단어일 뿐이다. 반면 '立場'은 전체 문단의 8.5%에만 나타나지만 皙學 문단에서는 23.9%이므로, 배율은 2.8x 에 달한다. 즉 '立場'은 皙學이 있을 때 특별히 함께 쓰이는 단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선정된 **19 개 단어**가 皙學的 의미장이다: 最後(3.1x), 態度(3.0x), 立場(2.8x), 傾向(2.8x), 範圍(2.7x), 問題(2.7x), 印度(2.5x), 西洋(2.3x), 思想(2.2x), 主張(2.2x), 研究(2.2x), 解釋(2.0x), 方面(1.9x), 目的(1.8x), 結果(1.7x), 如何(1.6x), 次第(1.6x), 生命(1.5x), 世界(1.5x)이다. 즉, 학술적 탐구(研究, 問題, 解釋), 논증의 태도(立場, 態度, 主張), 비교의 축(西洋, 印度) 등이 핵심이다.

1924 텍스트 365 개 문단에서 이 의미장 단어가 3 개 이상 동시에 나타나는 문단은 **26 개**다. 이노우에가 '皙學'을 사용했을 법한 지적 맥락이 이돈화의 텍스트에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26 개 중 '哲學'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2 개(7.7%)에 불과하고, 나머지 24 개(92.3%)에서는 哲學의 맥락은 있으나 哲學 자체는 없다.

哲學이 빠진 24 개 문단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고유 단어 상위는 다음과 같다: 自己(12), 宗教的(9), 生活(8), 人乃天(7), 創造(7), 建設(7), 精神的(6), 無窮(6), 理想(6), 眞理(5), 進化(5). 人乃天·創造·無窮은 천도교 고유의 개념이며, 眞理는 앞선 차등 어휘 분석에서도 부상한 단어다.

두 정량 분석의 결과가 수렴한다. 차등 어휘 분석(111 쌍)에서는 哲人·眞理가, 의미장 분석(전체 코퍼스)에서는 人乃天·創造·眞理·進화가 哲學의 자리에 나타난다. 이노우에가 '哲學'이라는 학술적 프레임으로 논의한 맥락을, 이돈화는 종교적·실천적 언어로 전환한 것이다.

## 종합

세 층위의 분석 -- 원문 대조, 111 쌍 차등 어휘, 전체 코퍼스 의미장 -- 이 일관된 방향을 가리킨다. 원문 대조의 두 가지 대체 패턴(학문적 권위 → 진리의 차원, 학문적 범주 → 종교적 경지)은, 111 쌍 전체에서 哲人·眞理의 부상으로, 코퍼스 전체에서 人乃天·創造·眞理·進化的 등장으로 뒷받침된다. 대조군은 이 방향성이 무차별적이 아니라 선별적임을 확인해 준다 -- 불교의 철학적 성격을 가리키는 맥락에서는 '哲學'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노우에에게 '철학'은 종교의 가치를 심판하는 최종 권위였다. 이돈화에게 '인내천'은 서양 철학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명한 진리였다. 세 층위의 분석이 이 방향성을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으나, 앞 절 사례 ③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정량적 지표를 일방향으로 읽으면 확인 편향에 빠질 수 있으며, 여기서 제시한 결과 역시 해석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 V. 맺음말

---

본 연구는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철학과 종교』(1915)와 이돈화의 『인내천요의』(1924)를 디지털 문헌학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여, 두 가지 질문에 답하였다.

## 첫째, 이돈화의 『인내천요의』는 이노우에의 『철학과 종교』를 어디서, 얼마나 참조했는가?

228,490 개 문단 쌍을 전수 비교하여 111 개 유효 참조쌍을 확정하였다. 참조쌍은 C03(人乃天과 眞理)과 C06(人乃天에 對한 雜感)에 집중되어 있으며(97%), 특히 C03-S04 의 I02(實在)와 I05(意識), C06-S06 의 儒基·佛基 비교 구간에 밀집되어 있다. 이돈화는 이노우에의 현상즉실재론, 의식 이론, 비교종교학적 프레임을 집약적으로 차용하였으나, 일본 신도론·신화론 등 일본 중심의 내용은 철저히 배제하였다.

## 둘째, 참조 과정에서 '哲學'(철학)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哲學'은 1915 텍스트에서 빈도 8 위(365 회)인 데 비해, 1924 텍스트에서는 518 위(6 회)에 그쳤다. '哲學'이 포함된 참조쌍 5 개 중 4 개에서 1924 대응 문단에 '哲學'이 나타나지 않으며, 원문 대조 결과 '哲學的價値·哲學系統'이 '哲人+眞理'로, '哲學宗教의 特色'이 '理想의 境涯'로 바뀐 2 건의 대체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 패턴은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111 쌍 차등 어휘 분석에서는 이돈화가 가져오지 않은 단어에 哲學 복합어 8 종이, 새로 쓴 단어에 哲人·眞理가 부상하였고, 전체 코퍼스 의미장 분석에서는 哲學의 맥락이 존재하는 1924 문단 26 개 중 92.3%에서 哲學 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그 자리에 人乃天·創造·眞理·進化가 등장하였다. 반면 불교 교리의 철학적 성격을 가리키는 맥락에서는 '哲學'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돈화가 소거한 것은 서양 근대 학문의 제도적 권위로서의 '철학'이지 철학적 사유 일반이 아님을 보여준다. 다만 원문 대조의 사례 수가 제한적(2 건)이므로, 이것이 의도적 전략인지 글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변화인지를 텍스트 분석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허수(2015)가 관찰한 '소거' 현상을 세 층위의 정량적 데이터로 뒷받침하였다. 원문 대조에서 확인한 대체 패턴이, 111 쌍 차등 어휘와 전체 코퍼스 의미장 분석에서 수렴적으로 재확인되어, '소거'가 텍스트 내에서 실제로 관찰 가능한 현상임을 보여준다. 둘째, 식민지 지식인이 제국의 학문을 수용하는 구체적 방식을 해명하였다. 이돈화는 이노우에의 논리를 보편적 이론 도구로 분리하여 재활용하면서, 학문적 출처를 가리키는 표지는 종교적 언어로 바꾸어 놓았다. 셋째, 디지털 문헌학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대규모 텍스트의 전수 비교와

빈도 분석은 전통적 연구 방법으로는 어려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지만, IV-2 에서 보았듯이 정량적 지표를 일방향으로 읽으면 확인 편향에 빠질 수 있다. 이돈화의 키워드에서 출발하여 원천을 역추적하는 양방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교훈은, 디지털 문헌학이 해석의 출발점이 지 중착점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한자어 중심 분석**이므로 순한글 표현이나 문법적 요소는 포착하지 못한다. 둘째, 유사도 **임계값 0.1 미만**에서의 실질적 참조를 놓칠 수 있다. 셋째, 이돈화가 이노우에의 텍스트를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등 **텍스트 외적 맥락**은 본 분석의 범위를 넘어선다.

## 부록

---

### 참고문헌

- 허수 (2011). 『이돈화 연구』, 역사비평사.
- 허수 (2015). 「『개벽』의 종교적 사회운동론과 일본의 '종교철학」, 『인문논총』 72(1), 325-355.
- 井上哲次郎 (1915). 『哲學と宗教』, 弘道館.
- 李敦化 (1924). 『人乃天要義』, 천도교중앙종리원 포덕과.
- McManus, Robert & Sichao Li (2025). "Measuring Accommodation: A Quantitative Text-Reuse Analysis of Matteo Ricci's Reliance on Chinese Classics,"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Humanities*.
- Sturgeon, Donald (2018). "Digital Approaches to Text Reuse in the Early Chinese Corpus,"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and Culture* 5(2), 186-213.